

# 벤엘교회 목회서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시편 120:1-2)

사랑하는 벤엘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함께 맞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위  
 심령과 가정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이틀은 당회와 함께 언론 간담회, 카운티 보건국과 대한민국 영사  
 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상황에 대응하며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이  
 번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기도하시는 여러 성도님을 위해서도 매 순간 기도  
 했습니다. 당초 교회 내부의 상황 대처를 위해서 보낸 텍스트 메시지가 외  
 부로 유출되면서 각종 포털과 언론에 전달되고, 사실 이상의 소문이 번져가  
 는 것을 보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이렇게 파급적으로 전염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울러 카운티 보건국에 모든 상황을 알리고 회의한 결과를 말씀드리  
 니다. 카운티 보건국 담당자는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담당자  
 는 먼저 3월 14일의 장례예배가 모든 보건 기준을 준수하여 진행되었고, 역  
 학 추정 결과 당일 확진자가 전염된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 장례예배가 안전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벤엘교회를 닫거나 참석자들이

자가 격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벨엘교회 당회는 성도들의 혼란을 피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언론 보도자료로 발표한 기존의 대응 지침을 그대로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상황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우리 모두가 바이러스 감염의 공포와 두려움, 불완전한 정보의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도의 본분을 지키며 고통당하는 주변의 여러 확진자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그때마다 교회가 앞장서서 보호하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기도를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생소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교회의 여러 어르신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접속이 어려운 어르신들 위해서 교회로 연락주시면 설교 CD를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목사 백신종 드림

### [기도제목]

1. 날로 늘어가는 확진자를 치료의 능력으로 회복 시켜 주시고, 가족을 위로하시며 은혜와 평안으로 지켜 주옵소서
2. 의료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방역 당국의 관계자를 영육간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려운 환경에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3.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사회의 빛이 되고, 고난을 겪고 있는 이웃의 위로가 되며,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